호명 스님은?

제방선원 · 토굴서 40년 정진

88세 불구 공부모임 지도

"선 수행은 이론이 우선시돼야 한다."

세수 88세지만 경전공부모임 경심회 지도에 진력하는 통도사 한주 호명 스님의 수행철학이다.

1914년 서울에서 출생한 스님은 1939년 구례 화엄사 포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제방선원과 토굴에서 40여 년 동안 가행정진하였다. 특히 51세부터 73세까지 천성산 조계암에서 있으면서 참선정진하고, 틈틈히 1천여 평되는 밭에 시금치, 배추 등을 심고 가꾸어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선농일치 생활을 22년 동안 하셨다. 그 때 터득한 것이 '나 혼자만 살아서 될 게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농사짓는 일만큼 나와 자연, 나와 우주, 나와 이웃이 하나라는 진리를 절실하게 깨우칠 수 있게 해준 것이 없다." 그 이후 산에서 내려와 불자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오랫동안의 참선정진 이력과는 달리 스님의 요즘 생활은 법문과 강의로 일관된다. 경주 신라불교문화대학 학장을 맡을 정도로 불교의 생활화에도 남다른 원력을 갖고 있다. 스님은 이론과 선 그리고 실천이란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며 불자들에게 수행에 앞서 정연한 이론 확립을 주장한다. 경심회 지도가 그 첫 작업이다. 스님은 앞으로 불자들의 눈을 밝게 틔워주기 위해 〈반야심경〉 해설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90에 가까운 나이지만 틈만 나면 밤을 새워 연구하고, 불교계 신문과 최신 불서를 꼼꼼히 읽으시며 법문 자료를 챙기시고 찾아오는 불자들을 상담에 응하며, 전국을 다니며 법문하는 스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선지식의 모습이었다.

조계암에서 내려와 지난 90년 봉암사에서 한철 수행한 후 지금까지 통도사에서 머물고 있는 스님은, 요즘 '삼위일체 이론화 교육'이란 프로그램을 마련, 불자들의 수행 지도에 남다른 원력을 보이고 있다. 선의 이론과 수행 그리고 실천이 바로 그것. 이론, 수행, 실천이라는 세 축이 제대로 이뤄져야 우주의 실체를 알고 그 속에 자신을 알아 일가견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우선 이론이 정연하면 공 사상이 확연해 집니다. 몸은 이대로가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금강경〉….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우주를 보시고 〈화엄경〉을 만드시고, 〈법화경〉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멀리 볼게 없어요. 이 몸이 소우주예요. 이것을 잘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철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 사상입니다."

이론을 정연하게 하는 것은 불교의 핵심사상인 공과 연기의 이론을 뚜렷하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얘기다. 선에 대한 이론을 위해 스님이 제시한 또 하나의 이론은 시간론과 공간론 그리고 가치론이다. 이것은 모두 〈반야심경〉에 토대를 두고 있다.

"불생불멸(不生不滅)은 시간론, 부증불감(不增不減)은 공간론, 그리고 불구부정(不垢不淨)은 가치론이야. 좋다 나쁘다, 더럽다 더럽지 않다, 이것이 가치론입니다. 난 여기서 가치론을 얻었어요. 불구부정을 알아두세요. 이것이 꼭 필요하고 내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교육이지. 이러한 이론을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사유와 정신과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론과 수행 그리고 실천의 삼위일체가 스님만의 독특한 수행철학이다.

스님이 주장하는 '삼위일론'에서 가장 우선이 돼야 할 것은 정연한 이론의 확립이다. 이러한 지식을 갖춰야 선의 레일위에 오를 수 있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스님은 늘 불자들의 기초교리공부를 강조한다.

또 다시 뵙고싶은 스님

스님도 그랬다.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불교 기초 교리를 수록한 〈불교의 정수〉와 〈반야심경〉을 읽었다. 〈불교의 정수〉는 불교가 뭔지 알게 해줬고, 〈반야심경〉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 설 정도로 출가의 결정적인 동기가 됐다. 이렇게 출가한 스님은 늘 '글과 내가 둘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심지어 수행을 하면서도 책을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할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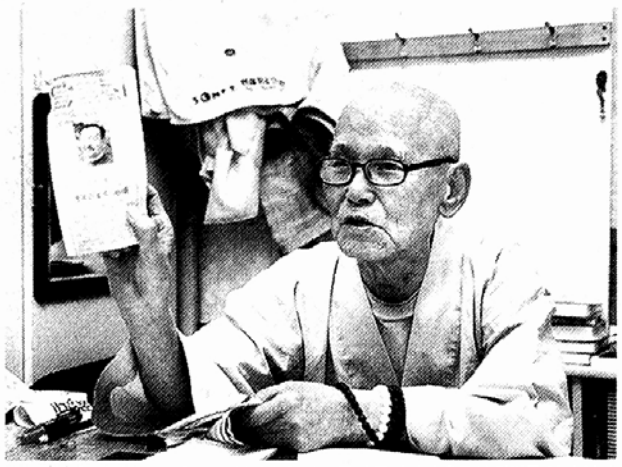
"선가에서 사교입선(捨敎入禪)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글을 무작정 버리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글을 보다 보면 문득 수행으로 돌려야겠다는 때가 옵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 때 수행을 해야 합니다."

스님은 강의와 법문을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 신문과 서적들도 두루 탐독하신다. 하지만 최근 나오는 불서들에 대한 평은 그리 좋지 않다. 불교의 알맹이, 즉 수행의 체험에서 나오는 책이라야 하는데, 종이 값조차 아까울(?) 정도의 내용없는 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스님은 신문에서 스크랩한 〈예수는 없다〉란 책의 기사를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살아 있는 말이다"고 말한다.

불교는 산 종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스님은 그 이유를 우리의 몸을 예로 설명한다. 스님이 말하는 인간의 몸은 소우주 즉 '우주의 축소판'이다.

"이 몸에 모든 진리가 다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어. 그 이치를 모르니 자꾸만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이야기하지 알고 보면 이 몸 안에 다 있어요. 부처님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때문에 나를 찾을 때에는 여기 몸에서 찾으세요."



◇이론을 정연하게 갖춘 뒤 수행과 실천이 맞물려 돌아가야 우주의 진리를 알아 일가견을 이룰 수 있다는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는 호명스님.

> "분별심 생기는 것은 '나'라는 아상때문 현실 있는 그대로 보라"

스님은 우리의 입이 이 몸을 살리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 진리도 모르고 봉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스님은 법문이나 강의에서 자비와 봉사를 자주 강조하신다. 몸이 곧 소우주임을 알라는 대기설법인 셈이다.

"며칠 만에 깎는 머리카락이지만 이것도 입의 봉사로 자라나거든. 손톱도 발톱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우리는 봉사를 안하거든. 왜 안할까요. 바로 '나'라는 집착 즉 아상 때문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소우주와는 대치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상에서 살고, 이 놈(몸)은 봉사해서 살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지요. 자연(우주)의 법칙이 아상과 대치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야. 그것이 바로 잡아져야 돼.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스님께서 한참 자비와 봉사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한통의 상담 전화가 걸려왔다. 스님은 "현실은 어쩔 수 없으니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내 얼굴이 찡그려지면 우리 생활 자체가 찌그러지거든. 그 얼굴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 나갈 수 없어. 아름답게 살기위해서는 집착을 없애고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지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스님은 평소에도 많은 상담전화를 받는다고 한다. 90에 가까운 나이지만 스님은 신도들이 찾아오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대 소사를 다 들어주고 또 자상하게 해법을 제시해 주신다.

6년 째 경주에서 통도사를 오가며 스님을 시봉하고 있다는 임태주(경주 성건동) 보살은 "스님은 천진불(天眞佛)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손님이 찾아와도 항상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불자들에게 신행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쉽고 명징하게 가르쳐 주세요. 뵙고 뒤돌아서면 또다시 뵙고 싶은 분이 바로 호명 스님이세요"라고 말한다. 스님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난다.

선은 우주의 진리를 우리들 생활로 동화시키는 작업이라고 강조하는 스님이 요즘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공부모임 경심회(耕心會) 지도다. 보살과 거사 두 팀으로 나눠 매주 직접 강의한다. 참선을 하기 전에 경전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삼위일체 이론화 교육'의 산물이기도 하다.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나려는데 스님이 화두를 주는 것처럼 한마디 툭 던지신다. "선은 '간'이야. 부처님은 간이 맞는 분이지."

글=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현진스님의 스님이야기 — 태경스님

태경(台炅) 스님은 아주 재미있는 도반이다. 그래서 그와 종일 같이 있어도 힘들거나 짜증스럽지 않다. 바로 스님의 입담과 익살 때문이다. 어쩌다 스님과 함께 여행을 해보면 해학이 넘치는 재치와 유머로 인해 여정이 더 즐겁고 신난다.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고 폭소가 터진다. 그와 있으면 정말 배꼽 잡고 마음껏 웃을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시들시들하던 기분도 스르르 풀어진다.

미국 스텐포드 대학 윌리엄 프리이 박사의 발표에 의하면, 크게 웃을 때 우리네 몸 속의 650개 근육 중에 안면 근육 80개를 포함하여 모두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한다. 이 같은 결과는 에어로빅 5분 효과와 같다고 하니까, 한번씩 박장대소할 때마다 엄청난 근육 운동을 하는 셈이다. 고혈압과 스트레스 등 현대 질병도 알고 보면 웃음의 사각지대에서 오는 병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태경 스님은 훌륭한 웃음 요법 치료사나 다름없다. 그는 늘 좌중을 즐겁게 만든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인기가 만점이다. 스님을 5분만 보고 있으면 울던 사람도 웃음보를 터트린다. 그만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재주가 다양하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개인기'가 많은 사람이다. 가수 모창에서 성대모사에 이르기까지

늘 좌중 즐겁게 '웃음 치료사'

수행할 땐 철저…기도 열심

그의 재주는 개그맨을 능가한다. 특히 그가 잘하는 모창은 나훈아 노래다.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 한번쯤은 진짜 나훈아로 착각한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너훈아 스님'이다.

웃음을 유발시키는 모든 행동이나 표정을 코믹이라고 한다. 이미 해인사 학인 시절부터 코믹한 그의 재주는 산중에 소문이 자자했다. 5월 단오 때마다 해인사 산중에서는 체육대회가 열리는데 축구와 배구가 주 종목으로 치러진다. 그런데 태경 스님이 해인사에 살기 시작하면서 단오날이면 더 재미있게 운동경기를 구경할 수 있었다. 스님이 입담을 발휘해 축구 경기를 아나운서처럼 생생하게 중계했기 때문이다. 축구도 박진감 있었지만 그의 중계 방송이 더 현장감 있었던 것 같다. 그 많은 축구 용어들을 재빠르게 구사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진짜 아나운서 경력이 있는 사람쯤으로 여길 정도다. 스님이 최근까지 대구불교방송에서 포교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도 알고 보면 이러한 순발력 있는 능력 때문이다.

인도를 여행할 때의 일이다.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태경 스님에게 몰려들었다. 학생들을 인솔하던 선생님은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 저만치 가고 있었다. 어린 학생들이 그를 둘러싸고 사인을 해달라고 조르는 광경은 마치 유명 스타의 공연장 같았다. 지나가던 여학생들을 보면서 유명 배우 제스처를 해보였는데, 그것이 여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모양이었다. 선글라스를 끼고 태연하게 사인해주는 그의 모습이 정말 배우나 다름없었다. 이처럼 스님의 행동은 때때로 익살스럽고 즉흥적이다.

이러한 유머 있는 모습 때문에 수행자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불과 기도할 때는 확 달라진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남을 잘 웃게 만드는 일도 수행의 한 방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한때 그는 설악산 봉정암과 선운사 도솔암에서 100일 기도를 주야로 한 적이 있다. 칠일 밤낮을 법당에 서서 기도하여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때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청송 주왕산에서 천막으로 토굴을 짓고 정진할 때는 정말 업식(業識)이 맑았다고 한다. 하루는 마을에 갔다가 산으로 오고 있는데 마을 청년들이 계곡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 전기를 이용해 고기를 잡는 잔인한 방법을 보고 "닭 한 마리 사줄 테니 고기 잡지 마시오" 했다. 그러나 청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였다. 그 행동을 보고 그가 마음으로 '오늘 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마라, 이놈들!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였다고 한다. 다음 날 마을 청년들이 찾아와서는 닭 한 마리 값 받으러 왔다고 농담을 하더란다. 깜짝 놀라 사연을 물어보니, '어제 스님이 지나가고 난 뒤로는 경운기 시동이 자꾸 꺼져 전기가 통하지 않아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이야기. 그의 기도가 신통으로 변한 예는 또 있다. 마을에서 키우는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밤마다 그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하루는 공부를 하다가 "저 놈의 개는 목도 쉬지 않는구나" 하고 말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그 집을 지나면서 보니까 개가 목이 가라앉아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낑낑거렸다. 이 같이 중생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그 힘의 전달력이 몇 배 강해지는가 보다. 이번 여름 안거를 끝내고 강원 시절 도반들이 태경 스님이 머물고 있는 절에서 모임을 가졌다. 우리는 또 그 시절로 돌아가 여전한 그의 익살에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웃을 수 있었다.



월간 '해인' 편집위원

귀신침범비법 · 산소침해비법(탈) · 빌미 · 부정병비법 · 응기 판단비법 · 비방비법

위 각 육임비요형이상비법 상해(六壬秘要形而上秘法 詳解)

찾아오거나
전화해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을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그 사람에게 지금.

一. 어떤 귀신, 누구 산소, 무슨 빌미, 어떤 부정병의 침범을 받고 있는지
一. 그 귀신, 산소탈, 빌미, 부정병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 할 수 있는지.
一. 천도, 시식, 부적, 굿 등의 수법을 행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없을 것인지, 효과가 나타난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할지.
一. 수법을 행했을 때, 언제 어느 날 부터 효과가 나타나서 언제 완전해 질 것인지.
一. 모망, 승진, 구재, 구직, 시험, 결혼, 임신, 가정, 이사, 소송, 질병, 매매, 여행, 도난, 실종, 가출, 면접, 채용, 투자, 승부, 가격, 경락, 묘지, 기후사 등의 중요사가.
언제(어느 월, 어느 일) 이루어 질것인지.

이상의 형이상사(形而上事)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 아쉬움과 이에 대한 학술이 갈망되어 왔으나 육임에서는 이에 관련된 사항이 비요(秘要)로 전해져 오고 있는바, 이를 이번에 정확히 밝히게 되므로서 우리 활인 천역자들의 경지가 한차원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셔서 활인 천역의 당오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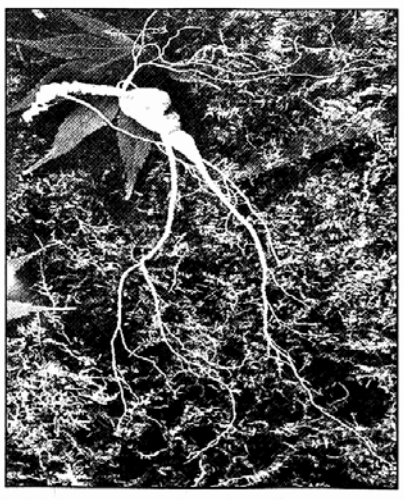
주문전화 : (02)993-8680 고복자 철학박사 효 사 배상
입금구좌 : 한 빛 은 행 066-475024-02-001 김 나 여

元 · 氣 · 回 · 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 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